



◇도 남북건설교통협력협의회 창립회의가 24일 강원연구원에서 최문순 지사, 오인철 대한건설협회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 강원도 남북건설교통협력협의회 창립

도는 24일 동해북부선 철도와 동해선 도로 연결 등 건설교통 분야 남북협력사업과 남북 강원 통일SOC 구축을 선도할 '강원도 남북건설교통협력협의회'를 창립했다.

도는 이날 강원연구원 6층 중회의실에서 협의회 창립식

을 열고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실질적으로 SOC사업에 참여 가능한 도내 건설업 대표 등을 위촉했다. 또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센터장을 초청해 북강원도 건설교통 인프라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최기영기자 answer07@

##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제61회 정기총회

2019. 4. 24 (수) 11:00 /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 2층 컨벤션홀



**건설협회 강원도회 정기총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24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에서 도회 회원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1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 건설업계, 강원도 '화마의 상처' 치유 앞장서다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동부·호반·태영·반도 등  
십시일반 성금 잇따라 기부

화마가 휩쓸고 간 강원도에 건설업계와 건설인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동부건설(대표 허상희)은 지난 22일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원을 기부했다. 성금은 동부건설 임직원 824명이 기부한 2403만원에 회사가 나머지들을 보태 마련했다.

같은 날 대우산업개발(대표 한재준)도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호반그룹은 지난 17일 강원 고성군을 방문해 성금 2억원을 전달했다. HDC그룹(회장 정몽규)의 HDC현대산업개발도 같은 날 1억원을 전달했고, 일신건설은 하루 앞서 1000만원을 기탁했다.

건설업계의 온정은 강원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부터 답지했다. GS그룹(회장 허창수)은 지난 8일 5억원을 기탁했고, 태영건설(대표 이재규)과 권흥사 반도건설 회장도 각각 5억원과 1억원을 전달했다.

9일에는 삼일기업공사(대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왼쪽)이 지난 11일 건설업계를 대표해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박종웅) 임직원들이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고, 금강주택(회장 김중재)도 지난 10일 성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은 지난 12일 사재 10억원을 쾌척하기도 했다.

한라그룹은 지주사인 한라홀딩스 명의의 성금 1억원과 정몽원 회장의 사비 1억원 등 2억원을, 효성(회장 조현준)도 1억원을 기부했다. 라온건설(대표 손효영) 역시 3000만원을 전달했다.

건설자재·기계업체들도 발벗고 나섰다. 아세아시멘트와 한라시멘트가 1억1400만원 상당의 구

호물품을 전달했고,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는 2600여만 원을 기탁했다. 금문철강(회장 문성호)도 1000만원을 전달했다.

건설관련 단체들도 동참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심광일)가 성금 4550만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가 6075만원, 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가 1억원, 건설기술교육원(원장 전병국)이 2000만원,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회장 윤현우)가 1000만원을 전달했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김경호)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도

성금을 전달했다.

지난 11일에는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강원 춘천 소재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피해시설 긴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 1억6000만원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건설협회 본회·서울시회·인천시회·경기도회·강원도회·경북도회·경남도회, 건설공제조합,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함께 마련한 성금이라는 의미가 남달랐다.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유주현 회장은 지난 17일 '희망하우스 봉사단 7기' 발대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 봉사단은 포스코건설의 현장 임직원들과 지역 소방서 대원들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200가구의 집수리와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기부금 1억1000만원과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의 3000만원을 합해 진행된다.

유주현 건설 회장은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이재민을 떠올리면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며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강원도 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정희훈 기자 hoony@

## 오인철 건설 강원도회장, 남북건설교통협력협의회 참여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오인철 도회 회장(사진 앞줄 왼쪽 세 번째)이 강원도 남북건설교통협력협의회 창립위원으로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동해북부선을 비롯해 동해선 도로 연결 등 건설교통분야 남북협력사업과 남북강원도의 통일SOC 구축을 선도할 목적으로 발족됐다.

협의회는 교류협력시대가 도래하는 데 대비해 협력할 분야를 찾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미리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다. 협의회 위원도 실질적으로 SOC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도내 건설업 대

표들로 구성됐다. 이날 창립회의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센터장을 초청하여 북강원도의 건설교통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강원도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는 남북 교류 사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분야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우선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도 남북농업교류협의회, 강원도 남북산림교류협의회를 연이어 발족했다.